

정경두 국방장관 향군방문, 안보정책 성원 요청

“국민 걱정 없게 국가 안보 튼튼히 지키겠다” 향군, 현황 설명... 주요 현안업무 지원 요청



향군을 방문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향군 간부들과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월 19일 향군을 방문하여 김진호 회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만나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향군 간부들에게 ‘9.19 군사합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또한 “우리군은 완벽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 할 것이며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진호 향군회장은

“남북군사합의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을 위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군사합의에 대해 일부에서의 지나친 부정적 견해가 있음을 우려하며 ‘향군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한 김진호 회장은 앞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인 향군은 전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직을 통해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향군은 본회 주요 직위자와 시·도회 회장단이 참석하여 정 장관에게 향군 일반현황을 설명하고, 향군의 여망사항으로 회원 300만명 확보 운동, 추모의 벽 건립비 모금운동, 대국민 신뢰 증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 6.25전사자 신원확인 등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모의 벽’ 건립 성금 2억원 돌파

전북 향군 1천7백만원, 거봉그룹 백용기 회장 1천만원 쾌척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이 11월 28일 2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0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성금 모금 운동으로 한 달 만인 11월13일 1억원을 넘겼으며 그 후 지속적인 성금 담지로 15일만인 28일 2억원을 돌파했다.

전북 향군이 1천7백만원, 충남 천안시 향군이 500만원을 기탁하는 등 향군 각급회가 적극적인 모금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1억5천여만원을 쾌척했으며 갑종전우회, 영관장교연합회, 기행사관동문회 정훈예비역대령단 모임 등 참전친목단체에서도 1천2백여만원의 성금을 보내 주었다.

또 기업과 일반회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거봉그룹 백용기 회장 1천만원, 정국썬 일테크 1백만원, 김흥철 한성중공업대표 50만원, 주식회사 더랩프 50만원, 법무법인 지평이 30만원을 기탁했으며 개인적으로는 정재현씨 100만원, 최학래, 한교출, 오을섭 향군 고문, 배성대 향군이사가 30만원 등 많은 분들

이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성금을 보내왔다.

한편 향군상조회 홍보대사 뽀빠이 이상용씨는 개인적으로 50만원을 보내 모금운동에 동참했으며 향군 홍보대사인 신수지씨도 금일봉을 보내며 뜻 있는 모금의 성공을 기원했다.

향군은 각계 각층의 호응과 동참 열기가 뜨거워 뜻있는 사업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금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으로 확대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추모의 벽’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유리벽을 둘레 50m, 높이 2.2m로 설치하여 6.25전쟁에 참전했다 희생된 3만 6천명의 전사자와 함께 싸우다 전사한 카투사 8천여 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사업이다. 향군은 명분 있고 뜻 깊은 추모의 벽 건립 기금 모금에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여 ‘추모의 벽’이 워싱턴 ‘평화의 상징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금 기탁자 명단 1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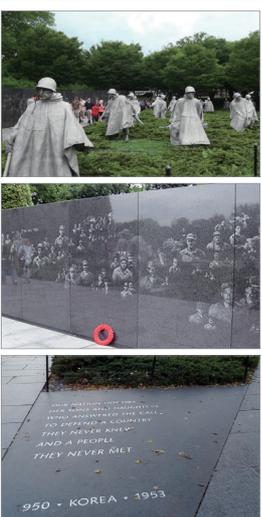


참전·친목단체장 초청 간담회 2면

추모의 벽 건립 성금 기탁자 명단 12면

‘추모의 벽’ 건립 성금을 보내주세요

■ 2019.3.31까지 ■ 향군 정회원, 현역장병, 기업, 단체, 전국민 대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참전기념공원 내에 ‘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70여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미군 3만 6천명 카투사 8천명의 이름을 새겨 넣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서 참전 영웅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때입니다. 뜻깊은 사업인 건립비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십시오. ※ 모금된 금액은 전액 ‘추모의 벽’ 재단에 전달됩니다.

모금 계좌 안내
우 리 1006-701-488707
국 민 801737-04-010172
농 협 317-0015-2392-71
• 예금주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문 의 : (02) 417-5886

김진호 회장, “강력한 한미동맹, 북한 비핵화 앞당길 것”

향군, 참전·친목 단체장 초청 간담회 개최...안보현안 토의



향군 참전친목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경제발전은 커녕 핵과 경제 병진정책도 성공할 수 없음을 북한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김진호 향군회장은 “북한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핵전쟁을 포함한 대규모 대남 도발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11월28일 향군 주관으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참전·친목 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김진호 회장은 “우리가 핵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쌍방의 협의과정이 불가피하다”며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군사합의는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며 남북한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우리 국방부가 한미간 긴밀한 사전협의

를 통해 국가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심층 검토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회장은 6.25를 겪었던 어린 시절부터 합참의장 재직시 제1연평해전을 지휘했던 일을 회고하며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전력 유지가 중요함을 절감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안보 정책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고 제안해 왔다”며, “독자적 핵개발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향군은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을 지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회장은 이어 “평생 군생활을 통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유지되고 전쟁이 억지되어 왔다는 사실”이라며 “한국군과 미국군은 지난 70년간 함께 싸우고 함께 희생하고 함께 승리한 동맹국”임을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 참석한 66개 참

전.친목단체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한다”며 “정부가 전쟁을 없애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 지지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9.19 군사합의는 강력히 추진하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한미동맹의 훼손, 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등 불가역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사항은 남북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조용근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이 참석해 군사합의서 내용과 작성배경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향군은 이날 간담회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한 ‘북한의 비핵화 정책 추진에 대한 향군 참전 및 친목단체장의 입장’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입장문 우측)

북한 비핵화 정책 추진관련 참전·친목단체장의 입장

2018년 11월28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주관으로 개최된 참전 및 친목단체장 간담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정책과 관련한 논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국방부에 전달합니다

■ 향군 참전 및 친목단체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을 지지합니다. 정부가 전쟁을 없애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하여 향군의 참전 및 친목단체장 일동은 지지 하면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합니다.

■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하되 의연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남북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는 성급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북한의 실질적이고 검증 가능한 조치와 진행사항을 지켜 보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 한미동맹의 훼손, 전력 증강사업의 지연 등 불가역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사항은 남북간 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의 안보를 지탱해 온 핵심 가치이므로 튼튼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력 증강 사업을 늦출 경우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업이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 9.19 군사합의는 강력히 추진하되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9. 19 군사합의는 핵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으로 가는 불가피한 과정임을 인정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안보에 한치 허점도 없도록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 최근 군사합의를 놓고 예비역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하는데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며 정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정책에 대해 정부의 충분한 정책설명과 정보교류 부족으로 오해가 없도록 국민들과 소통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군 출신 원로들과 정부정책 간담회 등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향군과 참전 및 친목단체장 일동은 최근의 안보상황을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국민 안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참전 및 친목단체장 일동

고객이 선택한 명품 테마휴게소!

경부고속도로 신탄진(서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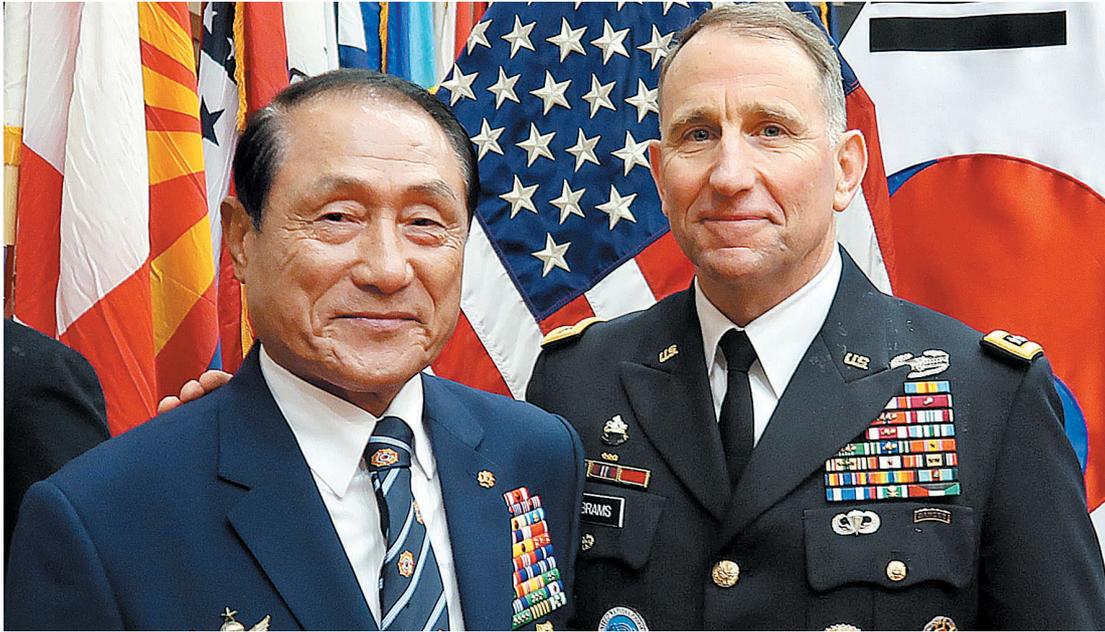
인삼랜드(통영방향)



대한민국재향군인회 고속도로 휴게소사업본부 (041)754-0894

신임연합사령관 “한미동맹 위해 향군과 협력”

김진호 회장 에이브람스사령관 취임식 참석, 안보현안 논의



김진호 회장과 에이브람스 신임 한미 연합사령관

2019년 재향군인회 달력 제작 배포



2019년 기해 달력이 제작 배포됐다. 가로 37.5cm, 세로 69cm 3단 규격으로 제작된 향군 달력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했다.

김진호 회장이 11월8일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바커 필드에서 열린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이임하는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로 부임하는 로버트 에이브람스 신임 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김 회장은 취임 행사 직전 신임 에이브람스 사령관과 별도로 만나 환담을 나누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임기간 동안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함께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에이브람스 연합사령관은 “미국을 떠나기 전에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존 킬러리 장군을 만나 김 회

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재향군인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조만간 다시 만나 협의하자”고 답했다.

에이브람스 장군은 부친과 3형제가 모두 장군을 역임한 병역명문가 출신으로 부친은 크레이튼 에이브람스 대장으로 한국전 참전용사이며 주월사령관과 참모총장을 역임했다. 미군은 그의 이름을 따서 주력탱크에 M1 에이브람스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도 했다.

에이브람스 신임사령관은 1982년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했으며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다.

안보전망대

“한미동맹, 세계사에 위대하고 모범적 동맹”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1월27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개최한 한미동맹포럼 강연에서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발전한 동맹으로 세계사에 위대하고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의 역사적 가치와 나아갈 방향’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6·25 전쟁시 한국에 대한 희생과 사랑의 정신이 오늘날 한미동맹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한국의 눈부신 발전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으며, 안보의 전환기를 맞은 한미동맹은 평화로 가는 우리의 담대한 발걸음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 “최적대안 위한 새 접근법”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안보적 함의’에 대해 “최적의 대안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잡고 다가올 미중 패권시대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 평화공존을

통한 장기적 전략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대안 없는 무조건적 비판은 비생산적 담론이자 담론의 정치화”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한 남북군사 신뢰조치의 발전과 보안이 필요하고, 의도하지 않은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 역사적 배경 있어 존중

추귀홍 주한 중국대사는 11월 26일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 평화연구소가 개최한 강좌에서 지난 8월 수교 26주년을 맞은 한중관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 다음 달로 40주년을 맞는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추 대사는 “한미 양국의 동맹은 양자간의 일로 한

국민이 연합군(유엔군)의 주둔을 원한다면 중국은 아무 할 말이 없다. 다만 제3국(중국) 안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 평화체제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외국군대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지만 주한미군 주둔은 역사적 배경이 있어 존중한다”고 답했다.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창설이후 지금까지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대국민 안보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 시대 변화와 안보상황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 졌다.

향군 최초의 대국민 안보캠페인은 1971년부터 시작하여 1978년 까지 이루어진 총력안보운동이다.

최초 안보캠페인 총력 안보운동

1970년대 초 우리의 안보상황은 그야말로 급변했다.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 오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동서진영간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었다. 1972년 미국의 닉슨대통령이 북경을 방문하여 미·중양국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를 추구한다는 성명이 발표하였다.

이러한 국제질서에 편승하여 1970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통일 구상 선언”을 발표하면서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에 공식적인 대화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이른바 ‘닉슨독트린’을 발표한 뒤 1971년 3월 주한미군 2만 명을 철수 시켰다. 이때 정부는 자주국방으

향군역사 바로알기 ③

대국민 캠페인으로 국가안보 다져

총력안보운동에서 추모의 벽 건립 모금까지

로 노선을 변경하고 예비군 창설과 방위사업을 통해 무기개발에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차원의 범국민적 총력안보운동을 전개했다. 향군 1971년 10월 제4차 이사회에서 ‘자주국방사상속진운동계획’ 채택하고 총력안보운동을 전개 했다. 1972년 1월 본부에 자주국방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명칭을 총력안보운동으로 변경함에 따라 4월 6일 각 시도에 총력안보 본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총력안보운동은 우선 안보계도요원 선 발하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자료 발간, 시청각 교육자료 제작 배포, 안보관련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었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실시된 총력안보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 실적을 보면 첫째, 총 6만 7천863회에 걸쳐 연

인원 1천736만 여명에게 안보강연을 실시하여 전 국민의 50% 이상이 안보계도교육을 받았다.

둘째, 재일동포 안보계도활동을 총 38회에 걸쳐 11만 7천여 명에게 실시하고 19개 우방국 향군과 상호 교류협력을 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혔다.

셋째, 8·15 저격사건 진상규명궐기대회, 자유민주체제 수호 향군단합대회, 총력안보 서울시민궐기대회 등 큰 행사도 실시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특히 총력안보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중 1975년 4월 사이공이 함락되고 월남이 패망하면서 도미도 현상이 일어나 주변국인 크메르 라오스가 공산화 되었다. 정부로서도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향군의 총력안보캠페인이 더 부각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캠페인은 향군을 중심으로

광복회, 반공연맹, 경제계, 언론계, 학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총 41개 단체가 연합하여 ‘총력안보국민협의회’를 결성하고 국민들의 정신무장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범국민캠페인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미 카터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안보캠페인 국가안보에 기여

이 외에도 향군의 안보캠페인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1970년 향군 새마을 운동, 88서울 올림픽 성공을 위한 ‘87 향군특별활동’ 1996년에는 ‘호국정신선양 운동’ 2006년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 2007년 6.25 바로 알리기 캠페인 ‘2009년’ 향군 발전 1·2·3 운동 ‘(향군 장학금 100억 조성, 정회원 200만 확보, 보호성금 300억 달성), 2012년 창설 60주년’ 국민 안보공감 캠페인 ‘2018년 현재 미 워싱턴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성금 모으기 캠페인 등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로서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는 일념으로 다양한 범국민 안보캠페인을 전개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데 크게 기여해 왔다. <홍보실>

안보정세 브리핑 2018 동아시아 안보전략 평가

이번 주제는 지난 10월 말에 한국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2018 동아시아 전략 평가」를 요약 발췌한 내용으로 2018년 세계 안보정세를 한마디로 “격변하는 국제질서와 불안한 동아시아”로 요약할 수 있다.

■세계 안보 정세

미국은 작년 연말에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국방전략(NDS)과 핵대세검토보고서(NPR)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미국은 향후에도 계속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NS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NDS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로, NPR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및 기술적 진전 상황을 위협으로 규정하여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과 재부상을 위협으로 규정함으로써 신 냉전의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군사 면에서는 미국을 재건하면서 힘을 기르되 그 힘을 무분별한 개입을 통해 사용하기보다는 미국의 직접 개입보다는 역외균형전략과 책임전가전략을 펴고 있다. 경제면에서는 자유 무역보다 공정하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을 시진핑의 1인 천하시대를 개막하며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중국몽 실현을 제시하고, 대외적으로는 패권추구를 하지 않지만 중국의 국가이익을 침해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중동정세는 종교 및 종파전쟁 가능성으로 크게 5가지로 미국의 이란 핵 합의 파기, 예루살렘 미 대사관이동, 시리아 내전, 예멘 내전,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와의 갈등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유럽 정세는 BMD(탄도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러시아의 서진정책에 대한 북 유럽 국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 안보정세

동아시아 안보정세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전략은 경제연대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보연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중 일로, 즉 해상 주권 구축과 충돌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 분야는 트럼프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 본능으로 관세를 통해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나 G2의 무역전쟁은 자유무역질서를 파괴하고 세계경제를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고, 미국은 중국에 WTO가입국에 걸맞는 체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책을 정조준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회담 분야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 비핵화 조치 협상을 개시하였는데 북한은 비핵화 단계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선비핵화, 후제재해제 기조의 유지 하에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트럼프행정부는 주권강화를 천명하며, 중국과의 경쟁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경쟁 강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중국을 억제하여 중국의 팽창을 방어하겠다고 공언하였고, 이에 따라 미중 협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감소되었으며, 갈등이 증폭되고 불신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아시아 정책에 인도를 추가한 미국-일본-호주-인도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중국과 본격적인 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남중국해와 항행의 자유 고수 분야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초기 중국과의 문제는 주로 무역수지와 환율문제에 국한되었지만 2018년 현재 남아시아 및 대만 문제까지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 문제의 현상유지를 추구하였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하나의 중국원칙에 구애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 하는 등 기존정책에서 조금씩 이탈하고 있다.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북한 비핵화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미 양국간 국가 안보실,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한미공조를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북한 비핵화 달성 이후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 비전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상황변화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리스크 헤징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상황이 급격히 경색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기초적인 연합훈련의 유지와 기본 전략자산의 보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관심이 비핵화에 집중되면서 한반도 재래식 군사력 균형문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데 한국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안을 제기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제거뿐만 아니라 재래식 군비통제 및 군축을 동시에 병행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우주사령부를 재장설하겠다는 미국의 발표는 군사혁신 경쟁시대의 본격 도래를 예고하고 있어 군사혁신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상대적 우의 점유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동맹국인 미국과 군사혁신

기술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미국의 대전략 변화에 따른 방향성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망 무력화 및 패권확보차원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서 중국의 꿈을 실현 시킨다는 강한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발전도상국 개념인 도광양회에서 벗어나 새롭게 부상하는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변화된 대외전략인 주동자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부의 적극적인 일대일로 추진은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국가들과의 정치-경제적 유대관계 강화하여 중국 중심의 새로운 역내 질서구축을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중국의 핵심이익 강조와 역내 주도 갈등 이슈로 한반도 이슈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자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이며, 대만 이슈는 미국, 대만, 중국 3자간 치열한 전략적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예상되며, 남중국해 이슈는 남중국해 영역에 대한 강력한 관할권 의지확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첫째,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에서의 균형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한미동맹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상호 신뢰구축 기제를 조속히 구축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한중관계에서의 전략적 소통의 강화를 해야 하는데 이미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가치와 필요성이 많은 관계이기에 양국은 이를 위해 한중 민관합동 대화체제 추진을 통한 신뢰구축 제도화, 다자안보 체제 모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최근 중국 군용기의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이 잦아지고 있다. 이는 KADIZ의 무력화와 성주 사드기지 레이더 기동신호와 운영부대의 교신 내용의 수집을 목적으로 도발이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국은 중국의 KADIZ진입을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남중국해 분쟁 격화에 따른 한국의 선택강요에 대비해야 한다.

향후 남중국해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 미중의 입장을 분석하고 군사적으로 사전에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반도 안보 정세(북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추진)

남북한 안보전략

1. 북한

2018년 초부터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노선의 새로운 단계 진입을 목표로 체제생존에 유리한 대내외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병진노선은 이론상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건설을 동시에 추구하여 완성함을 내세우고 있으나, 김정은 정권은 이제까지 일단 핵보유국 지위를 확실히 확보한 후, 안정된 핵 무력을 국제사회에 대한 강력한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대규모 경제지원과 투자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로 병진노선을 실행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2016~17년 사이에 김정은 체제가 거둬드는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핵탄두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고도화라는 핵 질주 정책을 고수한 것에서도 이런 의도를 읽을 수 있으며,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북한은 핵무력 완성의 시간표를 앞당겨 달성한 후 2018년부터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긍정적인고 낙관적인 점은 2018년에 드디어 북한정권이 병진노선의 두 번째 목표인 경제번영을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정을 통해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국가 목표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2.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결정으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기적인 평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의 정착을 지향하고, 둘째, 남북간 상호존중의 정신과 신뢰에 기반하여 북핵문제를 근본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상호연계성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기조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포괄적 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균형을 확인하고 사드 배치문제와 대미관계 및 남북관계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미국 조야의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서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은 한미간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양국정상은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력 강화를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을 제한을 해제하는데 합의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도 거듭 확인했다.

3. 남북 안보전략의 변화와 지속

- 북한정권의 생존 전략 변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 2018년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의사 표명으로 전면적인 남북교류와 협력을 제안하여 한국을 통한 미국과의 빅딜을 모색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평화공세를 취하게 된 것은 첫째, 생존전략의 변화를 북한정권의 주동적 조치로 보이며, 둘째는 2017년 잇단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압박과 최대관여 정책으로 대응하여 북한체제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체제위기 탈출구로서 남북관계 개선에 다시 매달리게 된 것으로 보이며, 셋째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착 제안으로 대화여건이 조성된 점이다.

- 문재인 정부의 지속가능한 평화 비전

2017년 위기상황이 지나가고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신년사에 적극 호응하여 북핵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한반도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비전 실현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의 핵심 아젠다 중 하나는 한반도 신 경제지도구상으로 특히 평화가 경제라는 논리로 접근하여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하며 남북경제협력과 공동체 형성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임을 강조하여 성공적인 한미 회담이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고 있다.

남북한 대남/대북정책 변화

1. 북한의 대남정책

북한은 대남 평화공세를 통해 정삼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북 군사압박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핵 무력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경제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의 대남정책은 일단, 북한 핵무력의 포기는 최소화하면서 병진노선을 완성하는데 남북관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적 이익의 추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과 2018 평양선언에서 남북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임을 선언문 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2. 한국의 대북정책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남 평화공세가 비록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전략적 선택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실현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변화라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적극 활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미북간 비핵화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여 이제까지 실무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삼간 담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3. 남북 및 미북 정상회담 이후 상황평가 및 분석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 성공’, ‘장기적 불안’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단기적 성공 평가 이유는 2018년부터 북한이 평화공세로 정책을 전환한 이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특히 2017년 11월 이후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일절 중단하고 있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비록 동결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고도화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장기적 불안 이유는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미북간 비핵화 협상의 전개 상황을 볼 때 현재까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보유가 정권 생존을 담보하는 보검이 아니라 정권의 존망을 촉진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즉 향후 북한이 남북간, 그리고 미북간 합의한 대로 완전한 비핵화를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핵과 미사일에 의지하지 않고 경제번영을 통하여 체제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모색하겠다는 김정은 정권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가 역시 지켜보아야 한다. 경제발전이라는 신 전략노선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 없이는 체제안화도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한국정부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객관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계속 발휘하면서 확고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신뢰받는 우리의 국군

장애시설 행사 자원 봉사



육군7공병여단 장병들이 10월20일 ‘승가원자비복지타운 자비마을’이 주최한 가을 운동회 ‘어울림 한마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행사를 지원했다. 자비마을은 약 130명의 지적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로 장애인의 단순보호에서 벗어나 의료, 교육은 물론 각종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통합을 돕고 있다.

이날 장병들은 “강건한 신체와 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큰 행복임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개인별로 장애인 1명의 ‘일일멘토’ 역할을 하며 멘티들이 경기에 어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평택호 연안 정화활동

해군2함대 장병들이 10월22일 평택호 권관항 주변 정화활동 전개하고 버려진 각종 부유물과 해양 쓰레기 수거에 힘을 모았다. 이날 2함대 장병들은 준비해온 청소도구로 연안과 해안 구석구석에 버려진 대규모 쓰레기를 수거했다.

장병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

산을 지키는 것은 물론, 깨끗한 바다를 보존하는 것도 해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안정화 활동은 경기 도청에서 주관한 ‘깨끗한 경기의 날’ 행사의 일부로 진행됐다.

축산농가 방역 지원

공군20전투비행단(20전비)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축산농가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미천변과 천수만 일대 도로에서 방역지원을 진행한다.

20전비는 10월24일 본격 지원에 앞서 관공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서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인근에서 가상으로 방역 시범을 보였으며 이날 “최근 AI 위기대응 단계가

주의로 격상되면서 충남 서산시 축산 농가의 근심이 커졌다”며 “AI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 3회 이상 방역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에는 전국 최대 철새도래지인 천수만이 있다며 최근 전북 군산 등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AI 위기대응 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됐다.

사랑의 김장김치 온기 전달

해병대 2사단이 김장철을 맞이하여 만든 김장 김치로 사랑을 실천했다.

해병대 장병들은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2018 양촌읍 사랑의 김장김치 나누기’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사흘 동안 인근 배추밭과 무밭을 찾아 3000여 포기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양념과 소를 만들어 김치를 담구며 구슬땀을 흘렸다. 정성껏 만든 김치는 지역내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됐다.

해병대 2사단은 매년 겨울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과 단체를 찾아 자원봉사를 하며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해병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부산을 향해 추모 묵념, 유엔 참전용사 기려
11월11일 11시 세계가 부산을 향해 하나 되다



11월11일 부산 유엔기념 공원에서 열린 ‘턴 투워드 부산’ 행사

‘턴 투워드 부산’으로 알려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식이 11월11일 오전 11시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 유엔기념 공원에서 ‘부산을 향해, 하나 되는 순간(Moment to Be One, Turn Toward Busan)’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국내외 6.25참전용사와 유가족,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추모식은 참전국 국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1분간 묵념, 영상물 상영, 헌화, 인사말씀, 추모사,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고 1분간 묵념을 통해 유엔군 전사자를 추모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국을 대표해

추모사를 낭독한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과 연아 마틴 상원의원 등 캐나다 상원의원단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편 부산시 향군도 이날 김정웅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50명이 참석하여 유엔 참전군에 대한 감사와 함께 참전용사들의 자유수호 의지에 머리를 숙였다.

해병대 사령부, 연평도 포격전 8주기 추모식

“영웅들 절대 잊지 않겠다”

해병대사령부는 11월23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연평도 포격전 8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고 서정우 하사·고 문광욱 일병의 묘역을 참배했다.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역대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장병, 전사자 모교의 후배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와 추모영상 상영,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헌시 낭독 등으로 진행된 추모식에서 전진군 해병대사령관은 추모사에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그리고 연평도를 지켰던 영웅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며 “진



정한 평화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지는 것이라며 해병대는 어떤 상황에서 누구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강한 힘으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겠다”고 말

했다. 해병대는 2016년부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과 별개로 해병대사령관 주관으로 연평도 포격전 추모식을 하고 있다.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가 11월12일 서울 롯데 콘서트 홀에서 유엔참전용사 유가족, 주한외교사절,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와 호국문화진흥위원회공동 주관으로 열렸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유엔군 전

추모와 평화주제로 감동무대 선사

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는 지휘자 겸 예술감독 배종훈의 지휘 아래 북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트럼페터 캐나다 옌스 린더만, 재미동포 첼리스트 고봉신 등 정상급 음악가들이 출연, 유엔군 전몰장병 추모와 평화를 주제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위기 극복의 침병 / 인천시 향군

재정위기 극복, 향군지원조례가 해답

다양한 공익활동으로 향군위상 높여... 명예 회복 지자체와 유대강화, 보조금 증액...회관시설 개선, 임대수익

인천시 향군(회장 김형년)이 원활한 회무 운영과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인천시 향군은 인천시로부터 2018년 운영비 보조금 1,000만원을 획득하여 시 회무 운영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9년에는 3천6백만원으로 증액해 인천시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은 인천향군 임직원들

향군 지원조례 개정 통한 보조금 획득

그간 사업비의 지원은 있어 왔지만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흔치 않아 인천시 향군의 사례는 여타지역의 향군 조직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 향군은 안보활동과 향군그린운동, 6·25 기념식, 재향군인의 날 행사 등 사업비 증액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2017년 1억1천만원, 2018년에는 2억7백44만원 확보해 사업 및 행사를 진행했다. 2019년에는 보다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2억7천여만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성과는 2017년 3월 제

15대 김형년 회장의 취임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김회장은 향군 도약의 전환기를 맞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운동을 전개하여 구태를 타파하기 위한 임직원의 의식개혁 운동과 적극적인 향군 봉사활동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향군에 대한 위상과 예우를 격상시켰다.

인천시 향군은 이를 바탕으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보조금 확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천 시청, 시의회 등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한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요청한 보조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산하 구, 군 향군에 향군지원조례 개정 지침을 시달하고 독려한 결과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계양구가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운영비를 확보했으며, 남은 5개 지역도 2018년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운영비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회관 시설 보수 통해 임대수익 확보

아울러 그 동안 크기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했던 회관 6층 대강당을 분리하여 일부 사무공간으로 시설을 개조하여 연간 1,000여만 원의 임대료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공간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 대관하여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환경 개·보수를 통한 임대수익창출 극대화를 위해 건축주진위원회를 구성, 이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지속적인 교류로 유대를 강화하는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인천시 향군은 재정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전 조직이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회원들의 모범사례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인천시 향군회관



강원도 향군, 통일안보체험행사

강원도 향군(회장 권동용)은 11월26일부터 4

일간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00명을 초청, 을지전망대 및 제4땅굴 등 남북 분단현장을 둘러보는 안보 현장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제주도 향군 워크숍, 조직 발전 방안 모색

'추모의 벽' 건립 모금운동 동참도 독려



제주도 향군(회장 김달수)은 11월15일 제주 칼호텔에서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급 회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2018년도 워크숍을 실시했다.

'격동의 한반도, 향군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안보강좌와 함께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도회 및 제주시, 서귀포시회 현

황 발표와 봉개동 및 영천동회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조직 전반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이날 김달수 회장은 "6·25전쟁 중 희생된 미군의 넋을 기리는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1달러 모금운동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고인의 위훈 기리고 호국정신 계승해야

전북 향군, 호국영웅 고 소병민 중령 추모식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은 11월2일 전주고교 정문 앞 고 소병민 중령 동상에서 유족을 비롯한 전주고교 학생, 보존관계자,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출신 호국영웅 고 소병민 중령의 추모식을 가졌다.

이날 주대진 전라북도 향군회장은 "조국을 위해 용전분투하시다 장렬히 산화한 고 소병민 중령의 위훈을 기리고 그들이 나라사랑 호국정신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제1전투비행단과 '공동발전 교류협력서' 교환

광주·전남 향군(회장 나중수)은 11월15일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 상호교류협력력을 통해 지역안보 등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발전 교류협력서"를 교환하고 군 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전남 향군(회장 나중수)은 11월15일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 상호교류협력력을 통해 지역안보 등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발전 교류협력서"를 교환하고 군 장병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소외된 이웃 찾아 사랑 실천

향군 여성회, 노인요양원 봉사... 위문금도 전달

향군 여성회(회장 추순삼)는 11월13일 강원도 춘천시 서면 소재 광림노인전문요양원을 지난해에 이어 방문, 요양원 실내 청소와 세탁물 정리, 위문금 전달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추순삼 여성회장은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치매와 중풍, 마비 등의 증세로 요양하고 계시지만 일제 치하에서 강제징용에 끌려갔다 오신 분과 사할린에서 영구 귀국한 분들도 계시다"며 "이 분들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요양원을 찾았다"고 밝혔다.

향군 여성회 봉사활동은 매년 해외 한국전 참전용사촌 봉사활동, 국내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 전달, 지역내 국군 귀환용사 및 6·25참전용사 위문행사, 현충원 묘역 관리,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김치 담그기, 보훈병원 위문, 재해지역 복구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8년 안보활동 추진 사례 소감문 우수작>

이념·진영 논리 치우침 없는 안보활동으로 신뢰받는 향군으로 거듭나

향군은 1952년 2월 1일 임시수도 부산에서 창설되어 지난 66년 동안 국가안보의 제2보루로서 "대한민국 안보지킴이"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다.

그럼에도 언제부터인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잘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고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안보단체로 거듭나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감으로 늘 고민해 왔다.

향군은 과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분들을 기억하고 전후 세대인 미래 세대에게는 튼튼한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펼쳐왔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여 향군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또 다른 시대적 사명도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여주시 향군은 2018년부터 새롭게 정립한 안보활동 시행 지침에 따라 여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안보의식 계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사회 및 읍면 동회, 여성회, 이사 등 임원들을 대상으로 향군의 정체성 교육을 실시하여 향군조직에 대한 신뢰회복 및 자부심 고취를 고취했으며 둘째, 안보현실을 바탕으로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 변화된 향군의 모습을 널리 알리는 국민통일 현장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서해수호의 날 행사와 학도병 전사자 선양 사업추진을 통하여 과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심어줌으로서 향군의 역할 증대시키고 넷째, 호국원 및 현충시설을 견학하는 학생 참여형 안보답사 프로

그램을 마련하여 호국 영령들의 혼이 깃든 현장에서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고 우리가 공유하는 평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되새겨 보게 함으로써 후계세대의 안보의식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 전적지 견학 실시를 통하여 향군 임원들에게 평화공존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한민족 민족의 기상을 느끼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 찬란한 역사를 이어받은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우리 여주시 향군은 이 같은 활동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안보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원활한 세대 간 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을 다하려고 한다.

또 이념과 진영 논리에 치우침 없이 변화된 안보활동과 실

천을 통하여 국가안보단체로서의 역할 증대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국민안보의식 계도와 국가안보정책의 전파에 앞장섬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안보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의 안보의식 고취, 그리고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 가치관을 함양시켜 자랑스런 통일대한민국의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하는 안보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김진수
여주시 향군 사무국장

대구-광주 전남·경북-전북, 영호남 화합행사



지역감정 해소, 단합 강조

경상북도 향군(회장 양정석)은 10월31일, 11월1일 전라북도 향군(회장 주대진)을 초청, 경주켄싱턴 호텔에서 영·호남 화합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양정석 경북 향군회장은 "교류 21돌을 맞이하여 영·호남 화합과 문화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경북과 전북 향군이 앞장서서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말했다. 기념행사 후 양도 회원들은 포항 영일만 크루즈 여행과 경주보문단지 역사문화 체험행사를 가졌다.

대구시 향군(회장 상백규)도 10월25일, 광주 전남 향군(회장 나종수)을 초청, 기념식과 함께 칠곡호국평화기념관, 3호선 하늘열차탑승 체험, 포스코 역사관 등을 둘러보는 영·호남 화합행사를 개최했다. 상백규 대구시 향군 회장은 "영호남이 하나되어 힘을 합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며 단합을 강조했다.

포항시 향군 청년단, 안보 토크쇼

경북 포항시 향군 청년단(단장 김태훈)은 11월27일 대동고등학교 대강당에서 탈북 안보강사 유흥씨를 초청, '북한친구 바로알기'란 주제로 나라사랑 안보토크쇼를 개최했다. 토크쇼에 참여한 학생들

은 "급변하는 남북관계에 대처해야 할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수능을 끝내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주의 위해 산화한 모든 참전용사에 감사

캐나다 서부 향군, '리멤버런스 데이' 추모식 참석

캐나다 서부 향군(회장 이상진)은 11월11일 캐나다 밴쿠버 다운타운과 버나비 센트럴공원에서 거행된 현충일(리멤버런스 데이) 추모식에 참석, 참전용사들의 위훈을 기렸다. 한인 참전용사들과 정병원 주밴쿠버 총영사 등 200여명의

한인단체와 회원들과 캐나다 재그미트 싱 신민당 총재와 신임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등이 참석한 이날 추모식에서 이상진 지회장은 "민주주의를 위해 순직한 모든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영원히 그들의 희생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



굳건한 한미동맹 기원, 참전용사에 감사

미 북중부 향군, Veteran's Day 기념식 참여



미 북중부지회(회장 이오영)는 11월11일 필라델피아 한국전 및 월남전 참전 기념비 앞에서 거행된 베테랑스 데이(Veteran's Day)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오영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 "1950년 한반도에서 북한의 공산침략으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엄청난 희생을 치루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미국과 모든 미국 Veterans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의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급회 소식 (10월21일 ~ 11월20일)

부산시 향군



부산시회 : 11월16일 구·군회 모범 임직원 40명을 선발하여 산청호국원 일대 안보현장을 견학.



사하구회 : 10월26일 전남 여수 6·25참전 충훈탑과 이순신 광장을 방문, 안보현장 탐방 행사 실시.

기장군회 : 10월25일 현충시설인 무궁수 혼전공비 정화활동 실시. 여성회는 11월6일 포항 장사상륙작전 기념탑 참배.

영도구회 : 10월25일 진동리 해병대 전적비, 거제도 포로수용소, 김영삼 대통령 생가 등을 둘러보는 안보전적지 견학 행사.

대구시 향군



대구시회 : 10월31일 구·군회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점검 회의를 갖고 회 재정절감 방안 및 추모의 벽 건립 모금활동 등을 논의.

동구회 : 10월26일 경남 사천 와룡산 백천사 및 2018년 공군 항공우주엑스포를 찾아 안보의식 고취.



달서구회 : 11월4일 전남 담양일대에서 자연보호 행사 및 회원 단합행사를 가져.

중구회 : 여성회는 11월7일 청송군 현동면 과수 농가를 찾아 사과 수확 봉사활동 실시.

남구회 : 10월26일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사천비행장 일대 안보현장 견학 실시.

서구회 : 11월5일 서구제일종합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봉사활동 실시.

북구회 : 10월28일 진해해군사관학교 견학.



수성구회 : 10월23일 농촌 일손 돕기 봉사활동 실시. 10월30일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견학.

인천시 향군



인천시회 : 11월16일, 17일 다부동전적지, 부산 UN기념공원, 거제도포로수용소를 방문하여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을 방문하여 장병들의 노고 격려.

남동구회 : 11월5일 다양 삼봉도 전적지 순례 활동을 갖고 안보의식 배양 및 회원화합 단결 도모.

중구회 : 10월26일 오두산통일전망대, 월미도전적비, 영국군잠정기념비 등을 찾아 안보현장 견학 및 향군그린 운동 실시.



계양구회 : 10월30일 부평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120여명과 함께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의 일환으로 콜롬비아 참전 기념비 등 견학. 10월31일 강원도 속초시 충훈탑을 참배하고 호국영령 격려.

옹진군회 : 10월30일, 31일 영흥초등학교와 교사들을 초청, 제3땅굴, 도라산역, 강화 평화전망대, 전쟁기념관,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견학 행사 실시.

부평구회 : 11월8일 부평시장 주변에서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활동 실시.

서구회 : 10월31일 신현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71명을 초청,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월미공원에 위치한 해군제2함대 주둔기념비, 해군특수부대(UDU)충훈탑 등 “나라사랑 현충시설 탐방” 행사 실시.

경기도 향군

남양주시회 : 11월2일 외부 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103보병대대, 제2땅굴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및 안보교육 실시.

양주시회 : 11월15일 보병 1군단 주관으로 양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엄수된 고양, 파주, 양주 지역에서 산화하신 6·25전몰용

사 12위 봉안 영결식 참석.



경기도회 : 여성회는 11월15일 용인청소년 수련원에서 2018년 여성회 활동 보고회 및 미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금을 위한 모금활동 실시.



수원시회 : 11월7일 시청 앞 올림픽 공원에서 인계유흥가 일대에서 향군그린운동을 갖고, 정화활동 실시. 11월1일, 2일 수도군단 총의 휴양소에서 안보 워크샵 및 후반기 통합회의를 개최하고 추모의 벽 건립 성금 모금.



이천시회 : 10월31일 강화도 일대 안보전적지에서 안보현장 탐방 행사 실시. 11월3일 대월체육공원에서 이천향군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용인시회 : 11월13, 14일 직접 담은 김치와 햅쌀 등을 불우이웃 30가구에 전달.

부천시회 : 11월20일 도회 이상노 안보부장을 초청하여 ‘광복 73주년,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안보 강연

강원도 향군



홍천군회 : 11월6일 강릉 통일공원 함정전시관 등을 돌아보는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인제군회 : 10월25일 남면지역에서 독도

의 날을 맞아 300여개의 태극기를 가정과 상가에 무료로 나눠주는 나라사랑 캠페인 실시. 11월14일 기린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을지전망대, 제4땅굴, 한국DMZ평화생명동산에서 안보·생태평화교육 실시.



동해시회 : 11월12일 양구 을지 전망대를 찾아 분단현장을 체험하는 안보견학행사 실시.

양구군회 : 11월15일 농촌체험장에서 사랑과 행복나눔 감상을 담귀 6·25참전용사 및 보훈회원에게 전달.

강릉시 내곡동회 : 11월14일 내곡동 주민센터를 방문,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주방용품 55세트 기탁.

충청북도 향군



충북도회 : 11월2일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찾아 선열들의 호국의지를 되새기고 안보의식 다져. 11월6일 시군 회장 사무국장 연석회의를 실시하고 추모의 벽 건립에 대한 충북도회의의 모금 계획 및 정회원 확보 방안 논의.



충주시회 : 안보단체협의회는 10월25일 정체성확립 및 호국정신함양을 위해 철원 제2땅굴 및 월정리 역 일대에서 안보견학 행사 실시. 서구지역 회원들이 11월3일 강릉 통일공원 일대 안보현장 견학 실시.

증평군회 : 11월6일 증평군 축산농협 대회의실에서 여성회 창설기념식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허태웅 강사를 초청, 안보교육.

옥천군회 : 10월30일 독립기념관, 외암민속마을 등 안보역사유적지를 방문, 안보의 중요성 체득.

음성군회 : 11월7일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와 전쟁 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견학.

대전 충남 향군

대전 대덕구회 : 10월28일 강화도 초지진, 광성보, 평화전망대 견학을 통해 강화도 역사탐방 및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11월 8일, 9일 사랑의 김장담가보내기 봉사활동

<8면에 이어>

을 통해 참전용사, 보훈가족, 독거노인, 소방서, 보육원, 노인정, 불우장병 등 220여명에 게 전달.



대전 유성구회 : 10월23일 도라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통일촌 등 안보현장 견학행사 실시, 회원 안보의식 고취.

대전 동구회 : 가양1동 향군은 11월9일 6·25 참전용사 및 기관단체장들을 초청 위로행사.



부여군회 : 부여읍 향군은 11월18일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갖고 어려운 독거가정에 연탄 2,000장을 전달.

전라북도 향군

김제시회 : 11월6일 경남 사천일원 임진왜란 유적지에서 안보현장 견학 행사 실시.

전주시회 : 여성회는 11월7일 덕진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활동.



임실군회 : 10월31일 불국사, 석굴암 등 경주일원 역사유적지를 견학하고 회원 단합도모.

군산시회 : 11월5일 임피중학교내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비 앞에서 거행된 제91주년 옥구농민 항일항쟁 기념식 참석. 11월7일 향군회관에서 일본인 선교사들을 초청, 전통예절 교육 실시.

무주군회 : 10월31일 6·25 희생자 추모 합동위령제 참석 희생자 추모.



남원시회 : 여성회는 11월7일 춘향골 체육관에서 열린 사랑나눔 행사에서 음료 봉사활동.

완주군회 : 여성회는 11월14일 완주군 효사랑 큰잔치 행사에서 팔죽 배식봉사 및 수

지침, 네일아트 봉사.

순창군회 : 11월14일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견학.

부안군회 : 11월14일 백산중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노용군 안보교수를 초빙, 안보 강연회.

고창군회 : 11월18일 제16회 고창 고인돌 마라톤대회에 참여 음료, 간식봉사, 코스정리 및 주변정소 등봉사활동 실시.

광주 전남 향군



광주 전남도회 : 11월6일, 7일 통일전망대, DMZ전시관, 화진포안보관광지, 강릉부채길 등 동해 최북단 안보현장을 견학.

광주 동구회 : 11월3일 부산 유엔공원 및 기념관, 해운대 동백섬, APEC나루공원 등 안보전적지 탐방.

광주 북구회 : 여성회는 11월2일 북구청이 주최하고 북구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북구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여, 회원 단합.



해남군회 : 10월29일 우슬체육관 열린 육군 제8539부대 4세대 체육대회 행사장을 찾아 위문.

나주시회 : 11월5일 지리산 일성콘도에서 대구 달성군 향군을 초청, 호·영남 교류행사.

목포시회 : 11월3일, 4일 제주 43 평화공원기념관과 육군 제1일훈련소 등 제주지역 안보현장 견학. 광양시회 : 10월21일 관내 중학생 70여명을 초청, 지역 현충시설 및 유적지를 탐방하여 우리 역사의 중요성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기 위한 '청소년 현충시설 및 유적지 탐방' 행사.

완도군회 : 10월22일부터 24까지 거제포로수용소, UN군묘지, 대전현충원 등을 둘러보는 안보현장 견학.

화순군회 : 10월24일, 25일 통일전망대, DMZ박물관, 화진포역사안보전시관 등을 탐방하는 안보현장 견학.

구례군회 : 10월22일 안보의식 함양과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여수일대 안보현장 견학.

경상북도 향군

경북도회 : 11월1일, 2일 전직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갖고 회 운영에 대한 조언을 듣고 단양군 일대 전직지 답사행사 실시. 11월20일 해병1사단(사단장 소장 조강래) 사령부를 방문, 위문금을 전달하고 장병들을 격려. 여성회는 11월19일 고령군여성회와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징용된 동포들

이 모여 있는 대장양로원을 방문, 위문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 실시.

포항시회 : 11월3일 포항 오천고등학교 학생들과 평택 해군2함대를 방문, 통일안보교육 행사를 갖고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



김천시회 : 11월1일 전북 정읍시 향군을 초청, 직지사 청산고을에서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 실시. 10월 24일 김충섭 시장을 명예회장으로 임명하고 인재양성재단에 장학금 100만원 기탁.

고령군회 : 10월30일 가얏고 마을에서 전북 완주군 향군을 초청,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 실시.

경산시회 : 10월29일 전북 고창군 향군을 초청, 영·호남 국민화합 교류 행사를 갖고 지역주위의 폐단 극복 결의.



구미시회 : 10월26일 전북 군산시 향군을 초청, 구미시 금오산, 칠곡 호국평화 기념관 일대에서 영·호남 친선교류 행사 실시.

영주시회 : 10월26일 영광여고 강당에서 '경북의혼 나라사랑 학생통일 안보교육' 실시. 11월1일 육군 제3260부대 3대대장 초청 간담회 가저.

영천시회 : 여성회는 11월6일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해군사관학교를 방문, 안보현장 견학.

상주시회 : 10월30일 상주실내체육관에서 제10회 호국보훈가족 경로위안잔치 개최. 여성회는 11월18일 제16회 상주꽃감 국제마라톤 봉사활동.

경주시회 : 10월26일 문화중학교 학생과 교사를 초청, 통일·사천일대 유적지 및 전시관을 찾아 청소년 나라사랑 안보교육 실시.

문경시회 : 10월26일 전방 사단인 6사단에서 거행된 제68주년 압록강진격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평화전망대와 제2땅굴 등 안보전적지 견학.

경남 울산 향군

거제시회 : 11월5일 강천산, 금성산성 전투지 등을 둘러보는 안보견학 행사 실시.

창원 성산구 응남동회 : 10월28일 양곡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동민 건강증진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동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함안군회 : 10월31일 함주공원 야외공연

장에서 실시된 국가유공자 보훈단체 경로위안잔치 봉사활동.



경남·울산시회 : 11월3일, 4일 포항·울진 일대의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과 장사상륙작전 전승용사위령탑을 찾아 안보의식 고취. 11월7일 마산 진전중학교 학생들을 초청, 부산 유엔평화기념관과 유엔 기념공원,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둘러보는 청소년 안보현장견학 행사 가져. 여성회는 11월5일 창원 북면 단감농가에서 단감 따기 봉사활동 실시.



창원 의창 성산구회 : 11월6일 당당한방병원과 회원 보건향상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하동군회 : 여성회는 10월30일 경남여성 리더봉사단과 함께 장애인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여 사랑의 밤차 봉사활동 실시.

울산시회 : 구회 회장단들이 11월15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예방하고 향군 현안업무와 관련 환담.

울산 남구회 : 10월27일 선암호수축구장 일원에서 열린 선암호수 가요제에서 봉사활동 및 먹거리부스 운영.

제주도 향군

제주도회 : 10월26일 제주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제주대학 학군단, 해군·해병대 학군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한철용 예비역 소장을 초청, '나라사랑·자유통일'을 주제로 안보강연.



서귀포시회 : 10월29일 황실가든에서 역대회장을 초청 간담회를 갖고 회무 협력 조언 청취. 여성회는 10월26일 부부떡방앗간에서 불우이웃돕기 일환으로 떡국 수익사업 실시.

향군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8년 '무술년' 이 저물어 갑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에는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고 더욱 건승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향군인회 홍보실>

친목단체 활동

표지석 제막식



단기간부사관총동문회(회장 정성건)는 10월31일 학군 교내 단총관 앞에서 표지석 제막식을 거행했다.

제70주년 포병의 날 행사



대한민국포병전우회(회장 김태영)는 10월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크리스탈볼룸에서 제70주년 포병의 날을 맞이하여 기념식행사를 개최했다.

가을 걷기행사



병참동우회(회장 조국연)는 10월27일 올림픽공원 내 몽촌토성에서 가을 걷기행사를 가졌다.

창립기념식



월남전참전자회(회장직무대리 서현석)는 11월7일 강남구 상제리제센터 연회장에서 창립기념식을 거행했다.

정기총회 및 전우 만남 행사



대한민국의정총동우회(회장 이공윤)는 11월16일 육군회관 태극홀에서 2018년 정기총회 및 전우 만남의 행사를 실시했다.

고 임상택 소령 추모행사



감중장교전우회(회장 김영갑)는 11월7일 3사단 돌격상 앞 광장에서 고 임상택 소령 추모행사를 가졌다.

일 침범 맞서 승리한 독도의용수비대, 독도 실효지배 결정적 역할

제64주년 '독도대첩' 기념식

제64주년 독도대첩 기념식이 11월21일 독도의용수비대 생존대원, 유가족, 유관기관, 보훈단체, 독도의용수비대 청소년 명예대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개최됐다.

독도대첩 기념일은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된 33인의 독도의용수비대가 6·25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독도에 무단 침범한 일본에 맞서 치른 전투 중 가장 크게 승리한 1954년 11월 21일 전투를 기념하기 위한 날로 지난 2013년 처음으로 "독도대첩일"로 선포되었다.

독도대첩은 일본의 영토침략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워 지켜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땅' 독도 산문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우리 땅' 독도 산문공모전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고려대와 업무협약

6·25전사자 유해발굴 전문성 강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1월14일 고려대학교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유해발굴·감식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양측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12월 발굴이 중단기간을 활용하여 유해발굴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는 탐사관, 발굴팀장, 감식관의 전문성 및 현장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교육은 12월11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고고학 야외조사 방법론, 유해수습과 분석방법 등 고고학과 인류학 관련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정 마지막 날에는 '유해발굴 최전선에서, 고고학과 소통한다'는 주제로 고고학, 인류학 분야 전문가와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를 통해 유해발굴·감식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직능분석과 발전 방안 토의, 국가 보훈사업으로서 유해발굴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지원 체계 등에 대한 토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친목단체 소식 (날짜순)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백골전우회 : 12월1일 역삼동 아르누보 호텔에서 송년회
- ▶불암회 : 12월4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 ▶영관장교연합회 : 12월4일 회 사무실에서 회장단 회의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12월5일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창작예술제.
- ▶육본직할결사대전우회 : 12월11일 육군회관에서 백골병단 전우회 6·25참전 67주년 기념행사.
- ▶대명연합회 : 12월12일 향군본부 중회의실에서 정기총회
- ▶성우회 : 12월13일 국방컨벤션에서 정기총회
- ▶충호안보연합 : 12월19일 육군회관에서 정기총회
- ▶ROTC중앙회 : 12월20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 ▶해군OCS장교중앙회 : 12월21일 서울 해군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송년회

※ 행사일정은 단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우여! 어디에 ...

- 이해동 예비역 육군 소령이 육군항공 11항공단에 함께 근무 했던 보급병과 최길만 중사(현재 상사이겠지요)를 찾습니다. (010-3616-6034)
- 김영준씨가 1996년부터 98년까지 발칸부대 행정병(교육계)으로 근무했었고 당시 교관관이었던 류진호 중사를 찾습니다. (010-8448-4586)
- 안대성씨가 1991년부터 1993년 3사단 수색대대 육사출신 이재수 중대장, 육사출신 김문근 중대장, 육사출신 김영섭 소대장을 찾습니다. (010-5213-0441)

향군장학기금

※ 기간 : 10월 25일 ~ 11월 24일
※ 단위 : 기부구좌(기부누계), 1구좌 1만원

▶ 개인

- 산하업체 (주)향우산업 대표이사 허재수 10(70)
- 부사관총연합회 고문 정소두 5
- 부사관총연합회 수석부회장 함석희 5
- 일반회원 JSA 경비대대 이한수 1(11)
- 일반회원 (주)대창농축 오승훈 1(29)
- 일반회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신현우 1(29)
- 일반회원 동국대학교부속중학교 교사 이미래 1(26)
- 일반회원 우리은행 신현정 2(16)

▶ 정기기부

- 경기도 양주시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오상익 3(201)
- 일반회원 이정호 1(250)

♣ 따뜻한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학재단 : ☎ 02-417-5887)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기부현황을 게시하였습니다.

향군장학기금 기부 계좌 안내

계좌번호 : 국민은행 801701-04-194529
예금주 : 재단법인 향군장학재단

재향군인신문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발행인 김진호 편집인 안찬희
인쇄인 배성한 간 별 월 간

2013년 12월 5일 등록번호 서울 다 10757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15 LS타워(성수동 1가)
전화 (02)416-0923 팩스 (02)417-5416

외부필진의 기고문 및 광고내용은
향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

치매가 보내는 경고, 「경도인지장애」... 초기진찰 중요

‘경도인지장애’ 질환은 일상생활능력은 유지되나 인지기능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상태이며,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80%가 5년 내에 치매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증상과 원인

기억장애가 가장 흔하고 언어능력, 길찾기 능력, 성격변화 등이 관찰될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뇌경색, 뇌출혈 등 치매의 모든 원인이 이에 해당된다.

예방법

운동, 인지활동, 지중해성 식사, 사회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주일에 최소한 4번 이상 1회에 40분 이상의 피곤을 느낄 정도의 운동이 필요하다. 또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독서, 글씨기 등의 활동을 해야 하며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야채 위주의 식사, 견과류, 카레 등의 좋은 음식을 늘리고, 육류, 담배, 술을 줄여야 한다. 아울러 친구를 많이 만들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뇌의 자극을 늘여야 한다.

진단·검사

신경심리검사로 정의가능하며 원인에 대해서는 혈액검사와 뇌영상, 혈액검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다. 또한, 원인을 알기 위해 1)증상이 비특이적이며, 2)젊은 환자에서 발병한 경우 아밀로이드베타, 유전자 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치료법

인지 증대 치료와 운동, 인지활동, 지중해성 식사를 통해 인지저하를 더디게 할 수 있다. 또한 혈관위험인자 조절을 통해서 뇌경색, 뇌출혈을 예방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행정보

12월에 가볼만한 곳

보성차밭빛축제 2019

‘보성’이란 지명이 이 땅에서 불린지 2019년이면 천년을 맞이한다. 그 장엄한 천년을 기리기 위하여 올해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가 한국차 문화공원 일원에서 12월 14일부터 2019년 1월13일까지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화합의 축제로 개최된다. 한국차 문화공원에는 차밭 빛물결, 은하수 터널, 빛 산책로, 디지털 차나무, 차밭 파사드 등 아름다운 빛 조형물로 겨울 밤을 장식할 뿐만 아니라 주말과 공휴일에는 파이어판타지, 가든 판타지와 같은 화려한 빛과 불의 공연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또한, 소망카드 달기와 문화장터 등의 상설 프로그램으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따뜻한 겨울 밤을 즐길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 2019

평창군 진부면에서 12월22일부터 2019년 1월27일까지 <평창송어축제>를 개최한다. <평창송어축제>에서는 선조들의 삶을 축제

로 승화시켜 눈과 얼음, 송어가 함께하는 겨울이야기라는 주제로 매년 겨울마다 송어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송어낚시와 썰매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진정한 겨울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소하형 어종으로 한국의 동해와 동해로 흐르는 일부 하천에 분포하며, 북한, 일본, 연해주 등지에도 분포한다. 특히 평창군은 국내 최대의 송어 양식지이며, 평창의 맑은 물에서 자란 송어는 부드럽고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제주성산일출축제 2019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의 자연적 가치와 풍광을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자연축제 제주성산일출축제가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평화의 섬 제주도 성산에서 열린다. 신이 빛어 놓은 듯한 성산일출봉의 일출은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도 새겨져 있을 정도로 장엄하다. 송구영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원축제, 전통문화와 예술관광을 테마로 삼아 관광객들과 함께 흥과 맛을 나누는 문화관광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2019년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희망의 불덩이가 여러분의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망을 이루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보성차밭빛축제



평창송어축제



제주성산일출축제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휴'와 함께 국립묘지에 준한 묘역관리로 고인·유족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안장대상

- 향군임직원 및 향군회원
- 해외교포 중 국내 안장 희망자
- 안보·친목단체 회원
- 재향군인회 상조회원

이용특전

- 분양가 할인 제공
- 안장 및 의전행사 지원



▲아외봉안담 3,000기



▲수목장지(소나무) 89주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3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묘역

KOREAN VETERANS ASSOCIATION
MEMORIAL PARK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Veteran's
Sacrifice and Dedication to our Nation.

분양상담
(분당추모공원'휴')
031-762-3000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주)재향군인회상조회 1577-0720 / 02-2218-7141

홈페이지 www.korvafamily.com

‘추모의 벽’... 워싱턴 ‘평화의 상징물’로 우뚝서길

□향군본부 임직원 : 15,922,000원

본부노동조합 300,000원, 오음섭 300,000원, 배성대 300,000원, 한교출 300,000원, 최학래 200,000원, 향군홍보대사 신수지 100,000원, 추순삼 100,000원, 이진기 100,000원, 박종학 100,000원, 강은학 100,000원, 김형수 100,000원, 손무현 100,000원, 안찬희 100,000원, 이양구 100,000원, 차원양 100,000원, 최준식 100,000원, 홍민 100,000원, 이상명 100,000원, 신동규 50,000원, 김중국 50,000원, 이숙경 50,000원, 최경선 50,000원, 박래혁 50,000원, 이영서 50,000원, 임석영 50,000원, 임명식 50,000원, 이상배 50,000원, 강경원 50,000원, 장형기 50,000원, 조정휘 50,000원, 조철희 50,000원, 김영은 50,000원, 오을민 50,000원, 황은철 30,000원, 박철현 20,000원, 조우철 11,000원, 조우진 11,000원, 김한기 10,000원, 조광식 10,000원, 박신권 10,000원, 김혜영 10,000원, 박민서 10,000원, 송필근 10,000원, 주인석 10,000원, 양정아 10,000원, 이영찬 10,000원, 정명식 10,000원, 박경선 10,000원, 강우석 10,000원, 김중옥 10,000원, 김진석 10,000원, 박현미 10,000원, 이왕호 10,000원, 강경운 10,000원, 권태운 10,000원, 김성규 10,000원, 문한조 10,000원, 우보리 10,000원, 고대현 10,000원, 김현종 10,000원, 박여진 10,000원, 성유경 10,000원, 엄춘광 10,000원, 이우정 10,000원, 임정탁 10,000원, 공승갑 10,000원, 조규호 10,000원, 조정일 10,000원, 진광진 10,000원, 최수경 10,000원, 최원준 10,000원, 황승원 10,000원, 이용재 10,000원, 오경자 10,000원, 강치구 10,000원.

□향군 산하업체 : 20,260,500원

중앙고속-㈜중앙고속 6,870,000원
향군상조회-조명환 1,000,000원, 김광열 500,000원, 상조희 홍보대사 이상우 500,000원, 박세진 50,000원, 김수순 50,000원, 김호 50,000원, 김명수 50,000원, 심경미 50,000원, 박문상 50,000원, 강대홍 50,000원, 민영근 50,000원, 최장규 30,000원, 유재진 30,000원, 박성우 20,000원, 김성한 20,000원, 김태은 20,000원, 김수진 20,000원, 차금식 20,000원, 이수혁 20,000원, 민광기 10,000원, 박지은 10,000원, 이윤희 10,000원
향우산업-향우산업(주) 2,180,500원
향우종합관리-향우종합관리(주) 1,510,000원
충주호관광선-권이섭 1,000,000원
종합사업본부-종합사업본부 1,530,000원
향군타워위생본부-향군타워위생본부 1,000,000원, 향군타워 위생직위 365,000원, 이미선 30,000원, 김발형 10,000원, 박귀용 10,000원, 서명덕 5,000원, 최근호 5,000원, 박기웅 5,000원, 김성기 5,000원, 오경준 5,000원, 이철우 5,000원
휴게소사업본부-휴게소사업본부 1,000,000원, 휴게소본부장 외 21명 590,000원

□향군 각급회 : 99,534,400원

서울시회-서울시회 4,030,000원, 김윤한 1,000,000원, 이종철 1,000원, 박출근 1,000원, 이용우 1,000원, 이용모 1,000원, 서성우 1,000원, 이원도 1,000원, 남철우 1,000원, 양이호 1,000원, 임영찬 1,000원, 정진문 1,000원, 정형관 1,000원, 최주환 1,000원, 한기정 1,000원, 김관식 1,000원
부산시회-부산향군 여성회 300,000원, 신용길 100,000원, 기장군회 100,000원, 해운대구회 100,000원, 염봉준 50,000원, 심은정 50,000원, 서구회 30,000, 북구·사상구회 150,000원.
경기도회-이경달 100,000원, 정선기 100,000원, 강명원 100,000원, 김성민 50,000원, 이상노 50,000원, 여영규 50,000원, 정태열 100,000원, 이장삼 100,000원, 김창환 100,000원, 안병혁 100,000원, 이항재 100,000원, 하익근 100,000원, 조광연 50,000원
광주시회-김재경 50,000원, 김영중 30,000원, 노흥욱 20,000원
광명시회-고정환 10,000원, 이종덕 10,000원, 김진구 10,000원, 신선열 10,000원
과천시회-박희욱 10,000원, 이주식 10,000원, 최인숙 10,000원, 과천시여성회 100,000원
군포시회-강총구 50,000원, 김관식 5,000원, 박영길 5,000원
김포시회-문순철 50,000원, 이영길 20,000원, 문봉신 20,000원, 이선화 10,000원
부천시회-우종섭 10,000원, 이양일 10,000원, 조두안 10,000원, 문조식 10,000원, 이대영 10,000원, 이강선 10,000원, 이상배 10,000원, 원명희 10,000원, 주연희 10,000원, 신명규 10,000원, 손금자 10,000원, 박해영 10,000원, 함종명 10,000원, 박지연 10,000원, 장동연 10,000원, 신정섭 10,000원, 이순옥 10,000원, 이순복 10,000원, 현림 10,000원, 문수점 10,000원
성남시회-우건식 100,000원, 안정국 50,000원, 김용기 20,000원, 윤창식 30,000원, 방극부 30,000원, 이재광 20,000원, 김용철 20,000원, 김영기 20,000원, 민병진 20,000원, 박

‘추모의 벽’ 건립 성금 기탁자 명단

(10. 30~11. 25)

중옥 20,000원, 박철 20,000원, 석남식 20,000원, 안종원 20,000원, 양한식 20,000원, 전철원 20,000원, 조규춘 20,000원, 권병호 20,000원, 이강세 20,000원, 박상록 20,000원, 이선희 20,000원, 강훈 20,000원, 송완오 20,000원, 오광교 20,000원, 방영기 20,000원, 이상기 20,000원, 권혁성 20,000원, 윤민희 20,000원, 이종옥 20,000원, 정병창 20,000원, 장교준 25,000원, 이숙희 25,000원, 임애연 15,000원, 이종인 15,000원, 이동각 15,000원, 김방우 15,000원, 권정숙 15,000원, 임남섭 15,000원, 고윤석 15,000원, 박병희 15,000원, 이진학 15,000원, 이성희 15,000원, 주영화 15,000원, 박옥자 15,000원, 이상목 15,000원, 강태식 15,000원, 권찬오 15,000원, 김경심 10,000원, 박옥자 10,000원, 이관순(태평) 10,000원, 심숙희 10,000원, 이정숙 10,000원, 박영애 10,000원, 변종애 10,000원, 김경애(분당) 10,000원, 임민자 10,000원, 이강례 10,000원, 심경연 10,000원, 김귀입 10,000원, 김경애(성남) 10,000원, 류희자 10,000원, 양순래 10,000원, 유순자 10,000원, 유정인 10,000원, 이관순(수진) 10,000원, 이옥이 10,000원, 이용금 10,000원, 권순자 10,000원, 송미화 10,000원, 원본남 10,000원, 이해월 10,000원, 조준심 10,000원, 정순매 10,000원, 유상분 10,000원, 이선미 10,000원, 이우정 5,000원, 송완오 12,000원, 이재광 12,000원, 최종일 12,000원, 이상돈 12,000원, 이순태 12,000원, 정승환 12,000원, 박성도 12,000원, 김승길 12,000원, 이병수 12,000원, 황계선 12,000원, 서윤석 12,000원, 정의근 12,000원, 전운길 12,000원, 유중수 12,000원, 김명재 12,000원, 박장식 12,000원, 이병호 12,000원, 신용규 12,000원, 김병남 12,000원, 안호철 12,000원, 조항규 12,000원, 김태술 12,000원, 서정태 12,000원, 김교복 12,000원, 오기수 12,000원, 이영희 5,000원, 한상희 5,000원, 이주영 5,000원, 정강철 20,000원, 정인재 20,000원, 김영식 20,000원, 강훈 20,000원, 이창수 20,000원, 이필우 20,000원, 한길찬 20,000원, 김종영 20,000원, 윤상록 20,000원, 유인동 20,000원, 유영두 20,000원, 양해록 20,000원, 이순태 20,000원, 이재광 20,000원, 성봉현 40,000원, 정병술 20,000원, 한영식 100,000원, 조성인 20,000원, 안영수 20,000원, 이철호 20,000원, 김차근 20,000원, 송광수 50,000원, 권명수 50,000원, 김형수 20,000원, 김대용 20,000원, 김학수 20,000원, 이재만 20,000원, 공홍수 20,000원, 이은호 20,000원, 채희태 20,000원, 장교준 20,000원
수원시회-김영경 100,000원, 박우갑 30,000원, 우재태 30,000원, 강춘자 30,000원, 홍덕천 20,000원, 안경수 20,000원, 사정원 20,000원, 김선일 10,000원, 구경희 10,000원, 김용제 10,000원, 정중기 10,000원, 장은식 10,000원, 박영구 10,000원, 남영우 10,000원, 안상경 10,000원, 류한형 10,000원, 김성기 10,000원, 하정숙 10,000원, 안중분 10,000원, 김옥자 10,000원, 심규덕 10,000원, 정영란 10,000원, 이은순 10,000원, 김현숙 10,000원, 정경미 10,000원, 안혜연 10,000원, 박미옥 10,000원, 김영자 10,000원, 이화장 10,000원, 유동화 10,000원, 김상수 10,000원, 최정윤 10,000원
안산시회-백병진 100,000원, 김성수 50,000원, 구관희 50,000원, 김남식 30,000원, 최순옥 30,000원, 이명숙 20,000원, 손천원 10,000원, 반병부 20,000원, 이명복 20,000원, 김소동 20,000원, 장자량 10,000원, 정장섭 20,000원, 윤복한 10,000원, 이남선 10,000원
안성시회-유덕상 50,000원, 천동현 20,000원
안양시회-김기홍 200,000원, 김영중 30,000원, 김현성 30,000원, 윤영태 30,000원, 박태영 30,000원, 한상호 20,000원, 박명수 20,000원, 강형수 20,000원, 설취남 20,000원, 이택수 20,000원, 유수열 20,000원, 박갑서 20,000원, 김기창 20,000원, 노순석 20,000원, 김명규 20,000원, 유희관 20,000원, 서우수 20,000원, 박성식 20,000원, 박병렬 20,000원, 김윤중 20,000원, 정극수 20,000원, 류현수 20,000원, 윤석정 20,000원, 황규문 20,000원, 조미화 20,000원, 장현숙 20,000원, 정옥례 20,000원, 강순덕 20,000원, 최미순 20,000원, 박은미 20,000원, 이영임 20,000원, 황순선 20,000원, 이병희 20,000원, 이상남 20,000원, 김복순 20,000원, 서원옥 20,000원, 김경희 20,000원, 송옥자 20,000원, 최정례 20,000원, 김경순 20,000원, 김영금 20,000원, 윤태옥 20,000원, 신은희 20,000원, 신정순 20,000원, 이순자 20,000원, 정권숙 20,000원, 이옥희 20,000원, 김준옥 20,000원, 손영자 20,000원, 김은자 20,000원, 전은영 20,000원, 박중서 20,000원, 김재현 20,000원, 이재우 20,000원, 이철용 20,000원, 이현규 20,000원, 조간남 20,000원, 나민자 20,000원, 성재희 20,000원
여주시회-장상경 50,000원, 이희복 20,000원, 박두형 20,000원, 이준호 20,000원, 장석민 20,000원, 윤태경 20,000원
의왕시-이규환 20,000원, 이경용 50,000원, 박경록 30,000원, 함병철 10,000원, 김남수 30,000원, 이원표 50,000원, 이근식 20,000원
군포시회-이현희 50,000원, 신민호 50,000원, 정용숙 50,000원, 한상돈 50,000원, 정양화 10,000원

시흥시회-김용식 30,000원, 이재현 20,000원
남양주시회-최재용 50,000원, 이원호 30,000원, 이숙자 20,000원, 김민식 300,000원, 이양자 10,000원, 김창목 70,000원, 김민수 10,000원, 이윤익 10,000원, 신현우 50,000원, 원억석 10,000원, 구유서 50,000원, 안태진 10,000원, 김만년 10,000원, 김재춘 10,000원, 김재동 10,000원, 이기환 10,000원, 이현보 10,000원, 이준성 10,000원, 주중수 10,000원, 송경석 10,000원, 이금중 10,000원, 최승구 50,000원, 정수목 10,000원, 이득수 10,000원, 유재영 10,000원, 김윤섭 10,000원, 이종음 10,000원, 권태복 10,000원, 윤주용 10,000원, 이준산 10,000원, 이효철 10,000원, 이기환 10,000원, 안동혁 10,000원, 오종만 30,000원, 최동규 20,000원, 조종필 10,000원, 정규화 10,000원, 함영복 10,000원, 유한인 10,000원, 이남길 10,000원
양주시회-박득호 100,000원, 오상억 50,000원, 이신해 20,000원
의정부시회-최용달 50,000원
용인시회-김제진 20,000원, 모유선 10,000원, 박은경 10,000원, 정관선 10,000원, 이덕주 10,000원, 윤정현 10,000원, 허정 10,000원, 김남순 10,000원, 김일성 10,000원, 엄기형 10,000원, 이용택 10,000원, 박정임 10,000원, 이동진 10,000원
하남시회-최주철 10,000원
화성·오산시회-안보현장견학 참가자 80명 211,000원
강원도회-영월군회 510,000원, 정성근회 500,000원, 춘천시회 500,000원.
대구시회-대구시회 1,129,000원, 허봉출 50,000원, 현상식 50,000원, 이난수 20,000원,
대전·충남도회-천안시회 5,000,000원, 금산군회 3,100,000원, 성대립 1,000,000원, 동구회 1,200,000원, 서천군회 1,000,000원, 대전·충남이사회 950,000원, 논산시회 330,000원, 천안군회 현우회 200,000원, 유성구회 30,000원, 충북도회-김정식 1,000,000원, 증평군회 이사회 1,000,000원, 보은군회 이사회 250,000원, 허태은 100,000원, 양태복 50,000원, 전도선 50,000원, 최재문 50,000원, 김준구 50,000원,
경북도회-경북도회 3,000,000원, 경주시회 1,000,000원, 칠곡군회 1,000,000원, 문경시회 남시욱 1,000,000원, 양정석 1,000,000원, 울진군회 강현덕 1,000,000원, 장흥군회 1,000,000원, 영덕군회 500,000원, 포항시회 이종영 500,000원, 울진군회 300,000원, 홍순임 300,000원, 울진군향군여성회 240,000원, 예천군회 200,000원, 서정오 200,000원, 안동읍면동 향군 200,000원, 문경점촌3동회 200,000원, 문경가은읍회 200,000원, 홍순임 200,000원, 고령군회 144,000원, 청송군회 이사회 100,000원, 고령군회 65,000원, 상주군회 변인주 50,000원, 이상인 10,000원, 배득찬 10,000원, 정기진 10,000원, 김주일 10,000원, 이병만 5,000원, 정상진 5,000원, 이종오 5,000원, 박승기 5,000원, 배한수 5,000원, 공대현 5,000원, 김태호 5,000원, 김상화 5,000원, 윤재용 5,000원, 오세정 5,000원, 이재목 5,000원, 강경모 5,000원, 임주오 5,000원, 채성철 5,000원, 조현태 5,000원, 윤보영 5,000원, 한백병 5,000원, 서한수 5,000원, 김민수 5,000원, 김병철 5,000원, 김연출 5,000원, 김유태 5,000원, 최두영 45,000원, 강점석 45,000원, 김광우 45,000원, 고령군회 30,000원, 불화군회 정식 30,000원, 임병진 10,000원, 정형숙 10,000원, 영천시회 이석기 24,000원, 유운식 24,000원, 정병창 12,000원, 경산시회 김종근 12,000원, 백상현 12,000원, 방영택 12,000원, 이상우 12,000원, 황희문 12,000원, 박임택 12,000원, 김중수 12,000원, 이용은 12,000원, 김연옥 15,000원, 전지연 15,000원, 울진군회 최옥수 12,000원, 김경숙 12,000원, 이해숙 12,000원, 안영숙 12,000원, 권혁희 12,000원, 배재아 12,000원, 전희자 12,000원, 심현숙 12,000원, 김선녀 12,000원, 최경목 12,000원, 김락순 12,000원, 박영옥 12,000원, 박지숙 12,000원, 구미시회 김원조 10,000원, 정성공 10,000원, 김정근 10,000원, 김태종 10,000원, 최중국 10,000원, 권영화 10,000원, 김준홍 10,000원, 송준희 10,000원, 하영숙 10,000원, 서명순 10,000원, 김영길 10,000원, 최충담 10,000원, 경산시회 최재호 6,000원, 황승우 6,000원, 전봉근 6,000원, 현응채 6,000원, 정규암 6,000원, 정양환 6,000원, 현중국 6,000원, 유윤선 6,000원, 김대용 6,000원, 박종길 6,000원, 이종호 6,000원, 김종완 6,000원, 조승래 6,000원, 박선미 6,000원, 구미시회 장운권 5,000원, 장재석 5,000원, 최재근 5,000원, 유중두 5,000원, 김원환 5,000원, 김희정 5,000원, 김정택 5,000원, 배병희 5,000원, 박금자 5,000원, 김춘선 5,000원, 김성순 5,000원, 서선미 5,000원, 강로문 5,000원, 포항시 이혁재 4,800원,
경남·울산시회-창녕군회 1,202,000원, 경남울산시회 1,050,000원, 울산중구회 1,000,000원, 진주시회 1,000,000원, 김해시회 1,000,000원, 울주군회 500,000원, 거창군회

500,000원, 산청군회 이사회 400,000원, 울산동구회 275,000원, 산청군회 여성회 200,000원, 산청군회 박정호 200,000원, 통영시회 100,000원, 진주시회 100,000원, 양산시회 100,000원, 거제시회 박재운 100,000원, 아주동 100,000원, 상주면회 100,000원, 황금부 10,000원, 울산동구회 89,000원, 통영시회 50,000원,

전북도회-전북도회 10,000,000원, 박지량 7,000,000원, 광주전남도회-광주전남도회 1,850,000원, 광주북구회 1,900,000원, 광주서구회 1,350,000원, 고흥군회 1,250,000원, 광주남구회 1,230,000원, 해남군회 1,210,000원, 광주광산구회 1,170,000원, 신안군회 1,111,000원, 광주동구회 1,050,000원, 화순군회 1,050,000원, 곡성군회 1,000,000원, 보성군회 이종도회장 등 임직원 1,000,000원, 영광군회 1,000,000원, 하동군회 1,000,000원, 완도군회 990,000원, 장성군회 930,000원, 무안군회 810,000원, 구례군회 750,000원, 영암군회 300,000원, 목포시회 사무국장 250,000원, 진도군회 270,000원, 담양군회 조하영 200,000원, 유재성 100,000원, 김진호 60,000원, 정종옥 60,000원, 정남호 60,000원, 정병환 60,000원, 조영구 50,000원, 목포시회 행정과장 50,000원, 이정숙 50,000원, 오춘자 50,000원, 추연순 50,000원, 김정오 50,000원,

제주도회-김성원 300,000원, 강기오 300,000원, 김창남 300,000원, 이상우 300,000원, 제주도회 166,400원, 제주향군산악회일동 100,000원,

□참전친목단체/유관단체 : 12,513,900원

갑종장교전우회 3,100,000원, 예비역영관장교연합회 2,050,000원,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1,000,000원, 아홉길 사랑교회 1,000,000원, 여군협의회 이재순 1,000,000원, 정훈예비역대령단 500,000원, 육탄집중사 200,000원, 50동우회 서갑성 200,000원, 071-ROTC경주 200,000원, 순천경찰이해회 100,000원, 이상호 군사편찬연구소 100,000원, 안동현우회 50,000원, 정창오 20,000원, 허일 50,000원, 공군전우(최미락) 50,000원, 대한민국육남참전자회 50,000원, 월남유성구지회 33,900원, 성우회 서진태 공증장 20,000원, 7군단 이상훈 10,000원

□기업/일반회원 : 34,745,362원

백용기 회장(거봉그룹) 10,000,000원, 엔텍월드(주) 3,000,000원, 김홍철 한성중공업 3,000,000원, AMERICA KOREAN VETERANS 1,109,458원, 다원노무법인 최종치 1,000,000원, 정재현 1,000,000원, 정국소일테크(주) 1,000,000원, 임병태 900,000원, 주식회사터렛프 500,000원, 법무법인 지평 500,000원, 이상기 300,000원, 강신혁 200,000원, 한승환 200,000원, 송진환 200,000원, 송옥 200,000원, 전인식 200,000원, 안세진(아트윈) 200,000원, 071-경주민속한우 200,000원, 이영하 200,000원, 허상진 111,900원, ㈜수소프트 100,000원, 김두환 100,000원, 김영애 100,000원, 김용규 100,000원, 김재혁(예대령) 100,000원, 김중진 100,000원, 김주환 100,000원, 박민정 100,000원, 이규석 100,000원, 정환수 100,000원, 김만년(남부) 100,000원, 서우석 100,000원, 주윤돈 100,000원, 안택순 100,000원, 오태근 100,000원, 조재우 100,000원, 초대 향군홍보실장 황광현 100,000원, 위성철 100,000원, 대구노원동 100,000원, 지광준 100,000원, 우리은행 이상흥 100,000원, 이현재 100,000원, 김영호 80,000원, 백성호 60,000원, 김미영 50,000원, 정장백 50,000원, 장석은 50,000원, 이사의 50,000원, 성우회 하복만 50,000원, 최순창육사7기 50,000원, 이창환 50,000원, 장석은 50,000원, 김두옥 50,000원, 최홍팔 50,000원, 유인선 50,000원, 김진영 50,000원, 이은영 44,000원, 김영자 30,000원, 김경택 30,000원, 박태순 30,000원, 박형남 30,000원, 박효기 30,000원, 천영한 30,000원, 정의성 30,000원, 이권영 30,000원, 김우만 30,000원, 허재영 30,000원, 김동용 20,000원, 김민수 20,000원, 이광호 20,000원, 이원복 20,000원, 조대성 20,000원, 한그루 20,000원, 이주희 20,000원, 소오 20,000원, 신성철 12,000원, 정무택 12,000원, 권태봉 12,000원, 이재섭 12,000원, 조규창 12,000원, 신상호 10,000원, 김병래 10,000원, 강태희 10,000원, 유나경 10,000원, 김원주 10,000원, 김나연 10,000원, 김현경 10,000원, 공상근 10,000원, 임서현 10,000원, 양재희 10,000원, 이강숙 10,000원, 김중호 10,000원, 강승민 10,000원, 김혁은 10,000원, 김중원 10,000원, 서태식 10,000원, 정문덕 10,000원, 정경철 10,000원, 구본준 농협 10,000원, 서윤하 10,000원, 전석희 10,000원, 이기용 10,000원, 김봉근 10,000원, 현광식 10,000원, 황삼주 10,000원, 흥두선 10,000원, 허철산 10,000원, 한성방 10,000원, 최희대 10,000원, 최순창 10,000원, 최동안 10,000원, 주호정 10,000원, 전자열 10,000원, 이종정 10,000원, 이병욱 10,000원, 이백림 10,000원, 이동수 10,000원, 이권영 10,000원, 윤상철 10,000원, 유병현 10,000원, 엄경환 10,000원, 박현수 10,000원, 박창근 10,000원, 박우래 10,000원, 김하영 10,000원, 김자일 10,000원, 강순향 10,000원, 강원봉 10,000원, 김영진 10,000원, 김용림 10,000원, 한찬상 10,000원, 이봉황 10,000원, 이형석 5,000원, 이종섭 3,000원